



왼쪽 맨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유치환, 노신, 보부아르.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느니보다 행복하나니라”

연애서간의 세계

사랑만큼 우리를 가슴 설레게 하는 것이 있을까. 우리 곁에 찾아왔던, 우리가 밤 밝히며 썼던 연애편지들은 그 사랑의 강력한 증표들이다. 아벨라르와 엘로이즈, 노신과 허광평, 사르트르와 보부아르와 같은 세기적 연인들의 연서에서 우리는 사랑 앞에서 정직했던 순결한 인간을 만날 수 있다.

“사랑하는 것은/사랑을 받느니보다 행복하나니라/오늘도 나는/에머랄드빛 하늘이 환히 내다보는/우체국 창문 앞에 와서 너에게 편지를 쓴다”(《행복》)

‘생명파’ 시인 유치환을 모르는 이는 없을 것이다. 우리는 이미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그의 시 <깃발>을 만났다. 하지만 그가 20년 동안 매일 새벽 한 여인을 그리며 뜨거운 사랑의 말들과 씨름했다는 것을 기억하는 이는 많지 않을 것이다. 무엇이 그에게 신열에 들떠 편지 앞면에 앉게 했을까.

우리는 그가 남긴 연서 《사랑했으므로 행복하였네라》(중앙출판공사)에서 그 답을 얻을 수 있다. “세상에 아니 목숨에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진정으로 사랑받는 일 이상으로 더 행복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없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편지를 우리의 연인에게 띄우고 싶은 편지로 바꿔 읽는다.

전설적인 사랑의 기록

사랑 이야기가 어디 한둘일까만, 아벨라르와 엘로이즈처럼 역사상 비극적이면서도 전설적인 사랑도 드물 것이다. 중세 프랑스의 수도사 아벨라르와 엘로이즈는 추상의 신보다 살과 뼈를 지닌 인간을 사랑했다는 이유로 아벨라르는 남성의 상징을 절단당하고 엘로이즈는 수도원에 유폐된다.

하지만 어찌 인간의 사랑을 막을 수 있겠는가. 서로를 향한 애타는 비원과 에달폰 간구는 《아벨라르와 엘로이즈》(정봉구, 을유문화사)로 기록돼 후대인들에게 사랑의 ‘성경’으로 자리잡았다. 엘로이즈를 애인 옆에 과묵으려 묘지를 파헤치자 아벨라르가 두 팔을 벌려 엘로이즈를 맞아들였다는 얘기는 후대의 각색이겠지만, 그들의 사랑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각인됐는지 보여준다.

아벨라르와 엘로이즈의 사랑이 ‘신의 농간’으로 더 빛났다면, 김남주와 박광숙의 사랑은 ‘역사의 간계’로 더 높이 승화됐다. ‘혁명의 시인’ 김남주가 투옥중 동지이자 약혼자였던 박광숙씨에게 보낸 57편의 연서를 엮은 《편지》(이룸)에는 “그대만이/지금은 다만 그대 사랑만이/.../가슴 가득히/

뜨건 피 돌게 한다”는 혁명적 사랑의 언어가 살아있다.

혁명 속에 핀 순결한 사랑

혁명 속에서 사랑은 더욱 고귀하게 피어난다. 봉건적 질곡과 제국주의의 위협 속에 혼미를 거듭하던 상황에서 스승 노신과 제자 허광평 사이에 오간 서간집 《노신 선생님》(박병태, 청사)은 연서라고 하기엔 너무 맛있다. 숨결 뜨거운 사랑의 언어가 없다. 오히려 사제간의 선을 넘지 않는 한없는 존경과 배려의 기척만이 느껴질 뿐이다.

하지만 이 책을 연서로 읽게 하는 것은 동지적 사랑 때문이다. 중국 현대사를 이끈 위대한 사상가요 예술가며 교사였던 젊은 지식인과 역사적 현실 속에서 자신의 삶을 구체화·실천화한 여대생이 암흑기를 헤쳐가는 과정은 요란한 사랑의 말 이상의 뜨거운 울림이 담겨 있다.

우리가 만나는 어떤 사랑은 때로 우리를 혼돈에 빠뜨린다. 장 폴 사르트르와 시몬 드 보부아르의 연애편지를 같이 읽으면 그렇다. 보부아르의 동료이자 인생의 동반자였던 사르트르가 그녀에게 보낸 연서를 모은 《나의 사랑 나의 연인》(최영환, 신원문화사)에서 사르트르는 그녀를 사랑하고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곁에서 돌봐주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이 지극하다.

그렇다면 보부아르는 어땠던가. 마흔두살의 나이에 미국의 좌파 지식인 벨슨에게 벼락 맞은 것처럼 사랑에 빠져버린 보부아르. 사랑의 주술에 걸려 20년 동안 벨슨에게 보낸 편지를 모은 《연애편지》(이정순, 열림원)에는 냉철한 이성보다는 본능에 충실한 여인이 있다.

오늘도 누군가는 디지털 시대에 걸맞지 않게 밤을 밝히며 연애편지를 쓰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들에게 이 서간집들이 주는 충고는 무엇인가. 사랑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 것, 그리고 사랑만이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함을 잊어버리지 말 것이 아닐까. - 박천홍 기자